

김민경(디지털콘텐츠학 2020)
김다혜(디지털콘텐츠학 2020) | 6면 사람

지난 7월에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운드 오브 슬래시'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다혜

김민경

교내 와이파이 개선 작업 진행 중 | 4면 뉴스

올해 각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와이파이 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 1727 호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대학주보

오는 21일 학위수여식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캠은 오전 10시 30분 평화의전당에서, 국제캠은 오전 11시 선승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양 캠퍼스에서 총 1,877명이 학사 학위를 받는다. 서울캠 1,057명, 국제캠 820명이다. 문과대학 147명, 정경대학 270명, 경영대학 228명, 호텔관광대학 174명, 이과대학 88명, 생활과학대학 63명, 약학대학 7명, 음악대학 30명, 미술대학 12명, 무용학부 5명, 자율전공학부 33명, 공과대학 134명, 전자정보대학 100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61명, 응용과학대학 46명, 생명과학대학 61명, 국제대학 116명, 외국어대학 118명, 예술디자인대학 103명, 체육대학 81명이다.

석사 학위는 총 1,523명, 박사 학위는 총 185명이 받는다. 또한 총 45명(서울캠 26명, 국제캠 19명)이 우등상을 받는다.

학위증은 서울캠의 경우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에서 배부한다. 국제캠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국제대학 108호(21일)와 국제대학 302호(22일, 23일)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부한다.

졸업 가운은 서울캠 네오르네상스관 112호 네오누리에서 대여할 수 있다. 국제캠은 학위증 배부와 함께 대여할 수 있다.

포토존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운영하며 서울캠은 본관 분수대 앞, 국제캠은 중앙도서관 앞이다.

	서울캠	국제캠
학위증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21일 국제대학 108호
		22-23일 국제대학 302호
졸업가운	네오관 112호	학위증 배부와 동일한 장소
포토존	본관 분수대 앞	중앙도서관 앞



예술디자인대학 통합전시회 '일곱 번째 결; 20:24 A/PM' 개최

【국제】예술디자인대학 모든 학과가 참여하는 통합전시회 '일곱 번째 결; 20:24 A/PM'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뉴스뮤지엄에서 열렸다. 예대 전시회 '결'은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적 개성을 하나의 무늬로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다른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다. 이번 통합전시회 주제는 '___부터___까지, ___의 시간'으로, 하루의 숨 실 틈이 되어주거나 더 몰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묻는다.

박서연 기자 syeon153@khu.ac.kr

전정대 수강신청 오류, 학생들 피해 속출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국제】지난 9일, 전자정보공학부 1학년 수강신청 과정에서 일부 과목이 제시간에 열리지 않아 혼란이 일었다.

예정된 1학년 수강신청 시간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이었다. 필수 과목들이 10시 30분을 초과해 열리는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순차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1학년 수강신청 거절 사태 총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오전 10시 49분에 고급미분적분학, 미분방정식 ▲오전 10시

50분에 물리학 및 실험2 ▲11시 2분에 물리학 및 실험2, 고급미분적분학, 미분방정식 ▲오전 11시 27분에 웹/파이선프로그래밍이 순차적으로 열렸다.

해당 과목 중 일부는 먼저 이수해야 하는 선수과목이었으며, 네 과목(미분방정식, 고급미분적분학, 물리학및실험2, 웹/파이선프로그래밍)은 1학년 필수 과목이었다. 전공기초 과목은 타 학과와 같은 과목이 존재했지만, 전자정보공학부에서만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수강신청 오류로 피해를 본 1학년 박재연(전자공학 2024) 씨는 "지연된 것도 문제지만 또 사전공지 없이 해당 과목 신청이 열려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선 이미 수강인원이 가득 찬 상태였다"고 설명

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업 시간표 계획이 무너졌다는 점이 가장 큰 피해"라며 "수강신청이 익숙지 않은 1학년에게 오류가 발생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정대 학생회는 "사건을 전정대 행정실에 전달했다"며 "전학년 수강신청에서 1학년 전공기초 과목 수강정원을 증원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박 씨는 "수강신청 오류로 1학년 수강신청 날, 같은 수업이지만 교수님이 다른 수업을 신청했다. 전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증원됐어도 원래 잡은 수업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

해야 하기에 원하는 수업을 잡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피해만 보고 전정대 행정실 해결책의 도움을 받진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사지원팀 윤영아 팀장은 "전자공학과와 반도체공학과가 2024학년도부터 전자공학부로 편제 개편된 바 있는데, 해당 부분을 수강신청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 수강신청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오류는 사전에 발견되지 않았다"며 "학사지원팀 및 단과대학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많은 학생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류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